

나미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1

나미비아(Republic of Namibia)

I. 일반개황

면적	824.3천 km ²	G D P	88억 달러(2008년)
인구	2.1백만 명(2008년)	1 인 당 GDP	4,095 달러(2008년)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Namibia Dollar (N\$)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달러당)	8.26 (2008년)

- 아프리카 남서부 연안에 위치한 나미비아는 한반도의 3.7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2.1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앙골라, 보츠와나, 잠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접경하고 있음.
- 1인당 GDP가 4,095 달러로 주변 국가 대비 비교적 높은 소득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광물자원, 수산물,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견실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포함바(Pohamba) 現 대통령과 집권당인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SWAPO)에 대한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 아래 안정적인 국정 운용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변국들과도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경제성장률	2.5	7.1	5.5	2.9	0.2
재정수지/GDP	-0.2	4.7	5.1	-0.9	-5.4
소비자물가상승률	2.3	5.1	6.7	10.3	7.8

자료: IMF, EIU

□ 경제성장세 둔화 추세, 그러나 '10년 이후 회복 전망

- 2005년 나미비아 경제는 다이아몬드 등 광물자원의 생산량 감소, 수산물 중심의 한 제조업의 부진 등으로 2.5%의 비교적 낮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06-07년에는 다이아몬드의 생산량 증가, 건설 부문의 호조세 등에 힘입어 연평균 6%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한편, 2008년에는 광물자원 등 제조업 전반의 생산량이 위축되면서 경제성장이 2.9%로 둔화되기도 하였음. 이 같은 추세는 2009년에도 이어져, 정부의 인프라 및 우라늄 광산 개발에 따른 건설 부문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수요 및 생산량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은 0.2%로 둔화될 전망이다.
- 그러나 2010년부터는 신규 우라늄 광산 개발(Etango 및 Rossing South)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회복세,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인프라 관련 투자 확대가 건설 분야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경제성장은 2.7%로 회복될 전망이다.

□ 재정수지 흑자기조

- 재정수지는 2005년까지 준 국영기업의 설립, 공공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만성적인 적자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2006-07년에는 정부의 지출 통제 개선 노력,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 SACU)의 수익배분 보상으로 인한 정부의 수입(收入) 증가로 1990년 독립 이래 처음으로 GDP의 5%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8-10년에는 정부가 새로이 중기 재정관리 체계(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를 추진하면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SACU의 수익배분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여, 동국의 재정수지는 또다시 적자기조를 기록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세, 그러나 '09년 이후 안정될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05년까지 동국 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rand貨 평가절상 및 소비재 가격 삭감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음. 그러나 2006년부터는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의 기록적인 상승세에 따른 수입(輸入)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여 2008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0.3%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2009-10년에는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안정세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소비자물가는 각각 7.8%, 5.4%로 다소 안정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 정책

[구조적 취약성]

□ 광물 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 2008년 기준, 광물 산업이 나미비아의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나, 동 산업이 건설 및 제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총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 광물가격의 등락이 동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국영기업의 적자경영 지속

- 나미비아는 공공부문의 임금이 정부 지출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인구의 4%가 공공분야에 종사(이는 남부 아프리카 국가 평균인 1.6% 대비 높은 수준)하는 등 정부 서비스가 GDP의 18.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현재 IMF가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국 정부는 민영화 추진보다는 국영기업의 경영개선 및 상업화를 통한 실적향상에 주력하고 있음.
- Nam Power社, Nam Port社 및 Telecom Namibia社와 같은 준 국영기업들은 정부에 정기적으로 배당금 상환이 가능한 정도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Air Namibia社, Namibia Airports Authority社, Namibia Water Corporation社, Social Security Commission社 등 대다수 기업의 경우, 구조적 비효율성과 부패경영 등으로 인해 영업 손실을 겪고 있는 실정임.

[성장 잠재력]

□ 광물자원 풍부

- 나미비아는 아프리카에서도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아연, 구리,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의 채굴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197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우라늄은 최근 국제 우라늄 가격의 상승세와 맞물려 동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일조하였음. 2008년 World Nuclear Association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나미비아는 캐나다, 카자흐스탄, 호주에 이은 세계 4위의 우라늄 생산국이며, 현재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약 10%(연 4,366톤)를 점유하고 있음.

- 최근에는 동국의 대표적인 우라늄 광산인 Rossing과 Langer Heinrich 광산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으며, 오는 2009-13년에는 최대 6개의 우라늄 광산이 신규 개발될 예정으로, 우라늄이 향후 동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관광산업의 성장 잠재력

- 나미비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발달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관광산업이 총 GDP의 약 7%를 차지하며 연평균 6.7%의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05년 44백만 달러에 달하던 동국의 서비스수지는 2007년에는 두 배 수준인 86백만 달러까지 증가 하였음.

[정책성과]

□ 제 3차 5개년 국가발전계획(NDP 3) 추진은 지지부진

- 나미비아 정부는 견실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제 3차 5개년 국가발전 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2007-2011)을 시행중에 있음. 이는 빈곤 및 소득격차의 감소, 민영부문의 일자리 창출, 토지 재분배 등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으며, 연평균 5%의 경제성장 달성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음.
- 한편, 정부의 이 같은 경기 부양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광업 등 수출지향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연평균 5%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개선하고 각종 규제들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경 상 수 지	268	1,016	693	157	451
경 상 수 지 / GDP	3.7	12.7	7.8	1.8	5.1
상 품 수 지	-255	102	-180	-711	-522
수 출	2,070	2,647	2,922	2,791	2,468
수 입	2,326	2,544	3,102	3,502	2,990
외 환 보 유 액	312	450	896	1,293	1,034
총 외 채 잔 액	1,366	1,427	1,003	798	1,112
총 외 채 잔 액 / GDP	18.8	17.9	11.3	9.0	12.6
D . S . R .	19.4	11.7	8.9	-	-

자료: IMF, EIU

□ 경상수지 흑자기조

- 상품수지는 그동안의 국제유가 상승세의 영향으로 수입(輸入) 부담이 가중되고 광물자원의 수출 또한 감소추세에 접어들면서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에는 국제유가의 하락세 및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입(輸入) 수요 감소로 인해 적자규모가 소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중심의 서비스 수입(收入) 증가, 소득수지 개선추세 등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2009년에는 그동안 적자를 기록하던 서비스수지가 외국계 광산 회사들의 수익 감소의 영향으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GDP의 5.1% 수준인 451백만 달러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상품수지: -1.8억 달러('07) → -7.1억 달러('08) → -5.2억 달러('09)
- 서비스수지: 86백만 달러('07) → -70백만 달러('08) → 25백만 달러('09)
- 경상이전수지: 9.5억 달러('07) → 10.7억 달러('08) → 10.0억 달러('09)
- 소득수지: -158백만 달러('07) → -132백만 달러('08) → -56백만 달러('09)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 증가, 외채상황 개선 추세

- 외환보유액은 광업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확대 및 FDI 증대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2005년 3억 달러에 달하던 동국의 외환보유액은 2008년에는 네 배 이상 증가한 약 1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외채규모는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SACU)의 수익배분 보상에 따른 관세 수입의 증가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러나 2009년에는 예산 적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차용 및 대외차용의 증가로 인해 외채규모는 GDP의 12.6% 수준으로 다소 반등할 전망이다.
 - GDP: 88.4억 달러('07) → 88.3억 달러('08) → 88.0억 달러('09)
 - 총 외채잔액/GDP: 11.3%('07) → 9.0%('08) → 12.6%('09)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오는 11월 대선에서 포함바(Pohamba) 現 대통령의 재선 유력

- 나미비아는 1990년 남아공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집권당인 남서아프리카인민기구(The South West Africa People's Organization: SWAPO)의

굳건한 통치 아래 정치 안정세를 지속해 왔음.

- 국민들로부터 국부(國父)로도 불리는 샘 누조마(Sam Nujoma) 의장은 1960년 당시 독립운동을 위해 조직된 초기 SWAPO 시절부터 의장직을 맡았으며, 초대 대통령으로서 3기에 걸쳐 연임한 바 있음. 지난 2004년 실시된 대선에서는, 누조마 전 대통령이 히피케푸네 포함바(Hifikepunye Pohamba) 現 대통령을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기도 하였음.
- 오는 11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도, 포함바 現 대통령이 SWAPO 당의 후보로 지명된 바 있으며, 현재 SWAPO 내에서는 그를 추종하는 세력과 누조마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 그러나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로 보아, 포함바 現 대통령이 커다란 어려움 없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주변국가와의 협력관계 지속

- 나미비아는 비동맹주의에 입각한 중립 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주변국가와도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집권당인 SWAPO는 인접국인 앙골라 및 짐바브웨 정부와 지난 독립운동 때부터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보츠와나와도 1998년 칼라하리(Kalahari)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1999년 영토분쟁을 해결한 이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아가고 있음.
- 특히,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동국의 무역 및 금융부문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현재 나미비아 수입의 80% 이상이 남아공으로부터 들여오고 있으며, 아프리카 금융허브로 알려진 남아공의 우수 기업들이 동국의 금융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음. 이는 1994년 남아공이 왈비스(Walvis)灣과 그 주변 영토를 나미비아에게 양보하고, 1997년 나미비아의 채무를 탕감해주면서 양국 간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데에 기인함.

2. 사회 및 소요사태

□ 자국민 노동인력 부족

- 나미비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도 비교적 넓은 영토(824.3천 km²)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구는 2.1백만 명에 불과함. 동국의 평균 에이즈(AIDS) 성인 감염률은 15.3%로, 스와질란드, 보츠와나, 레소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은 세계 5위의 높은 수준임. 이의 영향으로 동국의 평균 수명은 47세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또한 인구성장률이 1% 미만에 불과한 데다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활동에 필요한 노동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인구성장률 : 1.17%('04) → 1.03%('06) → 0.95%('08)

□ 극심한 빈부 격차

- 나미비아는 1인당 GDP가 4,095 달러로 아프리카에서도 비교적 높은 소득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빈부 격차가 매우 큰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가장 중요한 수출 분야인 광업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3% 수준에 불과한 반면, 총 인구의 70% 가량이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어, 양극화된 소득 격차 해결이 동국의 핵심 과제로 남아있음.

□ 종족 - 종교세력 간 평화적인 화합 유지

- 나미비아는 다양한 종족 및 종교 세력으로 이루어진 국가임. Ovambo족이 총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Kavango족(9%), Herero족(7%), Damara족(7%), Nama족(5%) 등 다양한 종족 그룹이 존재하고 있음.

언어에 있어서도 영어가 공용어이기는 하나, 부족언어인 Oshivambo어, Herero어, Nama어 등이 종족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종교적으로는 총 국민의 80-90%가 기독교(루터교가 50%)이며, 10 - 20%가 토착종교로 이루어져 있음.

- 이 같은 종족·종교 세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나미비아는 독립 이후 지속된 집권당(SWAPO)의 굳건한 통치 기반을 바탕으로 종족 및 종교세력 간 별다른 갈등 없이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 OECD : 3등급 (2007. 10) → 3등급 (2008. 10)
- o ICRG : 24/140 (2008. 7) → 8/140 (2009. 6)
- o I.I : 76/177 (2008. 9) → 70/177 (2009. 3)
- o Euromoney : 137/186 (2008. 9) → 109/186 (2009. 3)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o 미국 EXIM : 최고 부보율 적용
- o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o 독일 Hermes : 단기 전액인수 가능

3.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 개선

- 2006년을 거점으로 외채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GDP 규모가 최근

- 2009년에는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상품수지 등 제반 경제지표가 다소 악화될 전망이나, 2010년부터는 신규 우라늄 광산 개발에 따른 생산량 증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건설부문의 회복세 등에 힘입어 경제 성장이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 정치적으로는 집권당인 SWAPO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 아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도 포함바 現 대통령의 재임이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전문연구원 김예리(☎02-3779-6686)

E-mail : yeliekim@koreaexim.go.kr